

전북도 고용우수기업 18개사 발굴

선정패 수여... 최대 1500만원 기업성장 지원 다산기공·오디텍 등 기업 당 54명 취업 예상

전북도는 24일 전북도민의 취업난 및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고용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 선정패를 수여했다.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 전략사업 기업성장 고용연계 지원사업은 고용역량·매출·

기술력 등이 우수한 도내 기업을 발굴·기업성장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공모, 6월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고용인원 증가, 고용유지률, 청년층 고용인원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 18개사를 선정, 전주(3)·군산(2)·익산(3)·정읍(1)·남원(1)·김

제(1)·완주(7) 등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으로는 우수한 고용창출 및 꾸준한 기업성장을 이룬 다산기공(주), 우신산업(주), (주)오디텍 등 도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전자통신·선박·탄소·농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선정됐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3명 이상의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최대 1천5백만원의 기업성장지원비를 지원받아 제품개발·마케팅지원 분야 등에 활용 할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올해 54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내 우수인력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정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진흥 전라북도 정부부지사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성장을 이끌어 오신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 환경개선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을지연습 일일상황보고

송하진 도지사는 24일 도청 총무실에서 2017 을지연습 4일차를 맞아 주요 훈련내용 보고 및 전시현안과제(수돗물 방사능 오염시 비상급수 대책)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거점 '행정력 올인'

전북도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농업농촌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좋은 모델로 전국에서 또다시 주목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설치를 '1호 업무지시'로 내렸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원주로컬푸

드 활성화를 위한 농가레스토랑, 직매장 및 두유 가공공장 등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일자리를 52명(정규직 47명, 임시직 5명)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특히 단순한 일자리 늘이기에 집착하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즉 정규직 일자리를 최대한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력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고무적

인 현상이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6차산업화를 통한 매출액 4천9백만원(2015년 5,968 → 2016년 6,017) 증대를 통해 이 수익금이 농가로 환원, 농가는 다시 로컬푸드에 안전한 농산물을 납품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선순환 농업구조를 만들었다.

또한 직매장 판매금액의 90%는 완주농가 환원, 레스토랑 식재료는 지역농산물만 사용한다.

전북도, 우수자원 활용 양질의 일자리 마련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농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삼각농정 사업을 더욱 발굴확산 할 것이다"며, "농식품 6차산업화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게 로컬푸드 사례와 같이 '전북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임실군 4000억원 예산시대 열릴까

심민 임실군수, 청와대 방문 육정호 관광도로 개설사업 등 내년도 국책사업 반영 요구



억원(국비640·지방비160)을 투입, 육정호 남측의 10km 구간에 도로를 내는 사업이다. 나머지 5.8km는 전북도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으로, 일부 2.8km구간의

심민 임실군수(사진)가 지역 최대 현안인 육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24일 심 군수는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임실 출신인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육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올해 하반기 수립된다.

이에 따라 심 군수는 이날 청와대 방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육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심 군수는 "섬진강댐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우리 임실군쪽 도로인 15.8km가 개설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50년 전에 정부에서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속도로인 순환도로만큼은 반드시 국가에서 해줘야 마땅하다"고 호소했다.

육정호 수변관광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800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임실군은 10km 구간에 대한 국책사업 반영을 강력하게 요구 중이다.

이날 또 심 군수는 정무수석실 자치분권비서관실 김병내 행정관도 만나 문재인 정부의 지역공약인 노령산맥권 산림치유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인 성수산 바이오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논의했다.

심 군수는 "내년도 4천억원 예산시대를 목표로 연초부터 중안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한 국정기조로 내세우는 만큼 국가예산 반영에 있어 임실군이 소외되지 않도록 남은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한편 오는 10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는 신규 시책 발굴과 국토연구원을 통해 수립한 '임실비전 2026'의 55개 과제에 대한 구체화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임실=진흥명기자

도, 지역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 선정

숲속 에코힐링길 공간창출 등 재정 인센티브·기관 표창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위")가 주관하는 2017년도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전북도의 숲속 에코힐링길 공간창출 사업과 김제시의 대한민국 농생명 예뻐-유어리즘 선도사업이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역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임시 확보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 전국에 홍보하고 있다.

최종 선정된 전북도와 김제시는 지역위로부터 각각 기관표창을 받게 되며, 해당 사업별로 재정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전북도는 실과 및 시군으로부터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추천받아 전문가 검

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4건을 선정, 지역위에 추천했다.

지역위는 전국에서 추천된 사업 중 1차에 26건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총 18건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북도의 숲속 에코힐링길 공간 창출사업, 임실성수산왕의 숲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섬진강다슬기축제, 장안산 도깨비 축제, 육정호 주변 지역문화탐방 체험 등이다.

김제시는 '대한민국 농생명 예뻐-유어리즘 선도'사업은 벽골제 주변의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심층 활용하여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체험 관광에 창의·인성의 교육적 요소를 반영한 청소년 인성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만들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